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운



미 증시, 미-이란 휴전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, 테크주 강세 등으로 상승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5일(월)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타결에 따른 WTI 급락, IPO 흥행 효과 지속된 스페이스X(+19.6%) 강세, HBM 등 AI 수요 지속 전망으로 인한 마이크론(+10.8%), 엔비디아(+3.5%) 등 반도체주 동반 랠리에 힘입어 상승 마감(다우 +0.9%, S&P500 +1.7%, 나스닥 +3.1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+5.5%).

지난 3월 이후 주식시장 불안을 빈번하게 초래했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날 양국 휴전안 MOU 전자서명으로 수습 국면에 돌입한 모습. 덕분에 WTI는 전일 4% 넘게 급락하며 80~81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, 추후 “에너지 인플레이션 완화 → 연준의 연내 긴축 전망 후퇴 → 시장금리 하락 → 증시 밸류에이션 할인을 부담 해소”와 같은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.

물론 WTI가 80달러에서 더 내려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. 아직 완전한 종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, 19일 공식 대면 서명 이후 핵 우라늄 문제 등 이후 60일간 종전 협상에서 노이즈가 개입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. 더욱이 유가와 직결된 호르무즈 해협은 60일 완전 무료 개방에 합의하기로 했지만, MOU에 해상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된 점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통행료 징수를 놓고 양국간 잠재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.

이처럼 전쟁 및 에너지 인플레이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, 이미 시장에서는 지난 3개월 넘는 시간동안 내성이 생긴 것을 상기해볼 필요. 외생 변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 AI, 반도체주 중심의 이익 모멘텀 강화도 현재 진행형임을 고려 시, 최소 2분기 실적시즌 때까지는 미국, 한국 모두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타당.

전일 국내 코스피는 미-이란 휴전 MOU 체결 기대감에 따른 유가 약세, 금리 하락 등으로 글로벌 위험선호심리가 개선된 가운데, 외국인의 2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힘입어 반도체, 자동차, 금융 등 주력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5%대 급등 마감(코스피 +5.2%, 코스닥 -0.5%).

금일에는 미-이란 휴전 기대감에 따른 유가 및 금리 하락, 미국 반도체주 동반 랠리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. 상기 미국발 호재는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일정부분 기반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,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이후 여타 업종으로 선순환매가 전개될 가능성을 열고 갈 필요.

한편, 6월 5일 이후 15일까지 7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는 서킷브레이커 1회, 사이드카 6회(매수 3회, 매도 3회)가 발동되는 등 지수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극심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. 그럼에도, 최근 지수가 8,500pt대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쏠림 현상이 덜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요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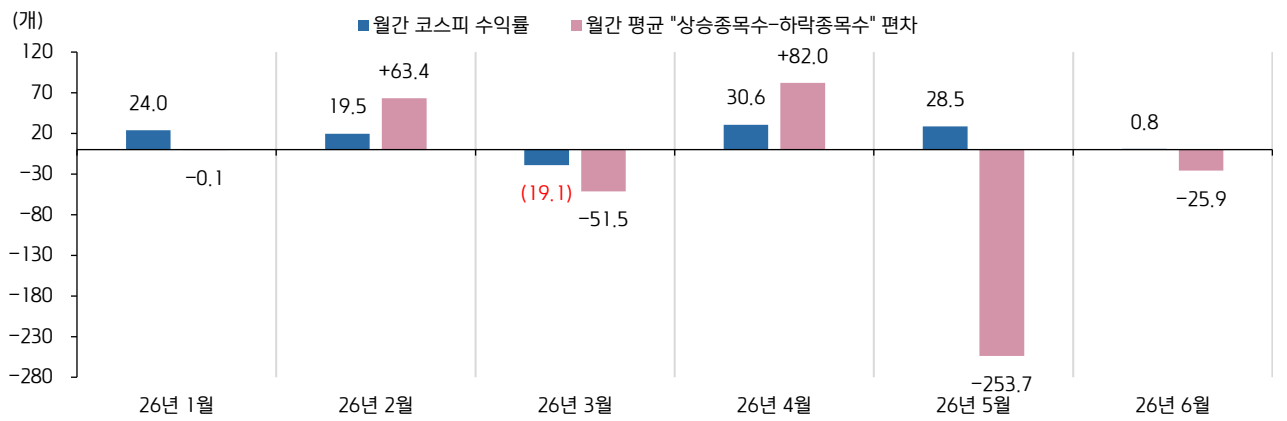
월간 단위로 보면, 수익률 온기의 확산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. 5월 코스피가 28.5% 폭등했을 당시, 월 평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편차는 -254개로 소수 종목만 랠리를 누렸던 상태. 하지만 6월 이후(~15일) 코스피가 0.8% 상승하는 과정에서 편차는 -26개로 5월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

이렇게 쓸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업종간 키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해볼 시점. 5월 코스피(+28.5%)의 성과를 상회한 업종은 IT 하드웨어(+111%), 반도체(+58%), 자동차(+33%), 보험(+29%) 4개에 불과했으나, 6월에는 소매/유통(+21%), 보험(+12%), 은행(+12%), 반도체(+3%) 등 11개가 코스피(+0.8%)의 성과를 웃돌았기 때문.

이처럼 업종 간 순환매, 성과 분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소수 업종 쓸림 현상이 촉발했던 FOMO 현상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요인. 물론 순환매 장세 혹은 키 맞추기가 나타난다고 해도, 실적, 내러티브 보유 관점에서 반도체, MLCC 등 기존 AI 밸류체인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. 이는 주 후반 6월 FOMC 등 주요 이벤트 전후로 경계심리가 재확산될 시 주도주들의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기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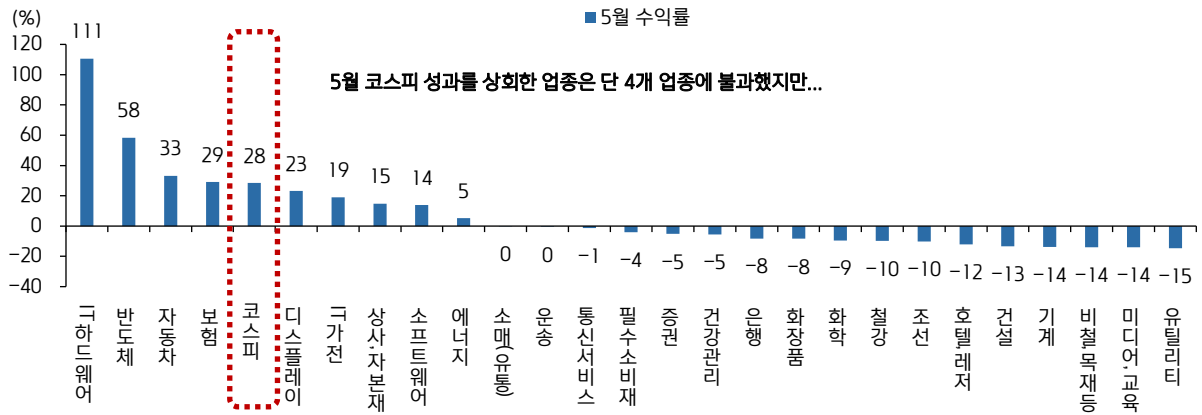
다만, 미-이란 휴전으로 인한 유가 및 금리 레벨 부담 완화,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 여건 호전 등 이전보다 증시 전반에 걸친 환경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. 따라서, 키 맞추기 확률이 여전히 높은 조선, 방산, 증권, 전력 기기, 은행 등 기존 주력 업종에 대한 비중을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.

연초 이후 코스피 월별 상승률과 "상승종목수-하락종목수"의 편차 비교: 5월 극심했던 쓸림현상으로 6월 중 변동성 증폭 및 가격조정을 겪었으나, 최근 주가 회복 과정에서 상승종목수-하락종목수간 편차가 감소되는 등 쓸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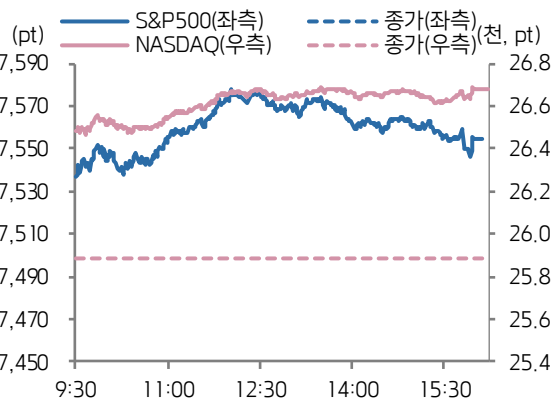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5월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vs 6월(~15일)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: 업종 측면에서도 5월 코스피 성과 상위 업종은 4개에 불과했으나, 6월에는 11개로 늘어나는 등 업종간 순환매, 성과 분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소수 업종에 대한 시장의 FOMO 현상을 진정시켜주는 요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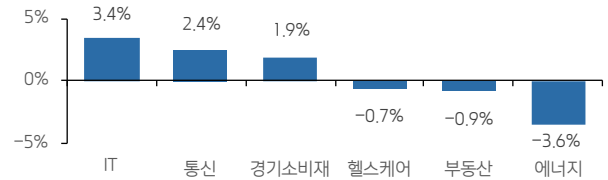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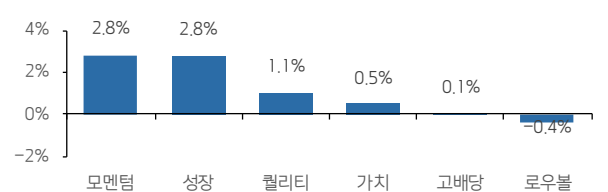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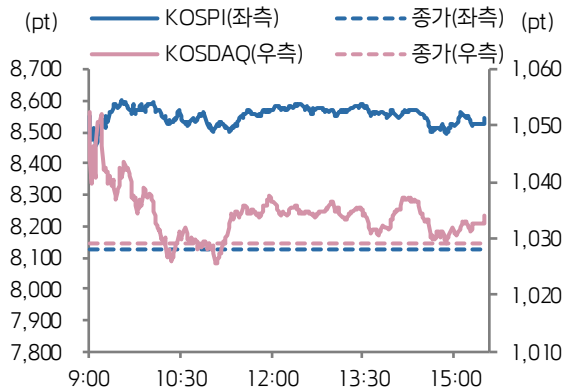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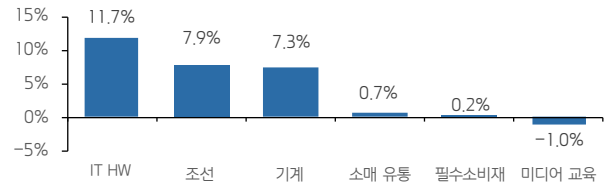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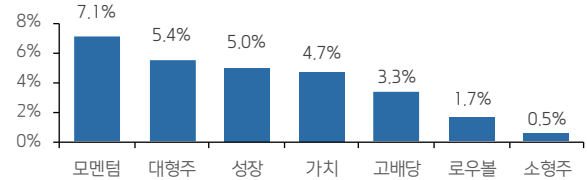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증가	DTD(%)	YTD(%)	종목	증가	DTD(%)	YTD(%)
애플	296.42	+1.82%	+9.03%	GM	84.07	+3.15%	+3.38%
마이크로소프트	399.76	+2.31%	-17.34%	일라이릴리	1,129.35	-0.32%	+5.09%
알파벳	369.35	+2.69%	+18%	월마트	120.82	-0.18%	+8.45%
메타	593.48	+4.67%	-10.09%	JP모건	319.40	-0.41%	-0.88%
아마존	246.02	+3.13%	+6.59%	엑손모빌	140.92	-4.14%	+17.1%
테슬라	411.15	+1.16%	-8.58%	세브론	180.40	-3.64%	+18.36%
엔비디아	212.45	+3.54%	+13.91%	제너럴일렉트릭	120.82	-0.2%	+8.4%
브로드컴	393.94	+3.11%	+13.82%	캐터필러	933.93	+2.57%	+63.03%
AMD	547.26	+6.98%	+155.54%	보잉	228.95	+4.52%	+5.45%
마이크론	1,087.99	+10.84%	+281.2%	넥스트에라	86.12	+0.2%	+7.3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8,545.98	+5.2%	+102.79%	USD/KRW	1,515.20	-0.2%	+5.26%
코스피200	1,360.26	+5.34%	+124.47%	달러 지수	99.67	-0.08%	+1.37%
코스닥	1,034.03	+0.48%	+11.73%	EUR/USD	1.16	+0.19%	-1.33%
코스닥150	1,841.37	+0.26%	+19%	USD/CNH	6.76	-0.06%	-3.1%
S&P500	7,554.29	+1.65%	+10.35%	USD/JPY	160.34	+0.06%	+2.32%
NASDAQ	26,683.94	+3.07%	+14.81%	채권시장			
다우	51,671.03	+0.92%	+7.51%	국고채 3년	3.740	-5bp	+78.9bp
VIX	16.20	-8.37%	+8.36%	국고채 10년	4.120	-7.5bp	+73.5bp

러셀2000	2,965.09	+0.72%	+19.47%	미국 국채 2년	4.066	-1.5bp	+59.3bp
필라. 반도체	14,099.62	+5.45%	+99.06%	미국 국채 10년	4.473	-0.6bp	+30.6bp
다우 운송	22,351.31	-1.09%	+28.77%	미국 국채 30년	4.979	+1.2bp	+13.5bp
상해종합	4,096.47	+1.61%	+3.22%	독일 국채 10년	2.954	-4.1bp	+9.9bp
항생 H	8,375.74	+0.02%	-6.03%	원자재 시장	가격	DTD(%)	YTD(%)
인도 SENSEX	76,264.33	+0.97%	-10.51%	WTI	80.75	-4.87%	+41.57%
유럽, ETFs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83.17	-4.76%	+36.68%
Eurostoxx50	6,229.43	+0.68%	+7.56%	금	4,351.60	+2.66%	-2%
MSCI 전세계 지수	1,131.28	+1.71%	+11.5%	은	70.18	+3.25%	-0.6%
MSCI DM 지수	4,862.60	+1.55%	+9.76%	구리	649.60	+0.79%	+14.33%
MSCI EM 지수	1,763.95	+2.8%	+25.6%	BDI	2,729.00	+0%	+45.39%
MSCI 한국 ETF	211.45	+7.09%	+117.5%	옥수수	441.75	+0.34%	-4.07%
디지털화폐	가격	DTD(%)	YTD(%)	밀	600.50	+0.8%	+10.03%
비트코인	66,493.35	+3.94%	-24.14%	대두	1,134.75	+0.24%	+6.6%
이더리움	1,816.08	+8.79%	-39.01%	커피	259.20	+2.29%	-19.0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6월 1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